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대로 진실만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1호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불교가치 담은 교육 자생력 확보가 필수

불교 인성교육 현황과 과제는?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불교 인성교육이 각광 받는 가운데, 교육 범주가 '차문화'와 '중독 예방' 등 불교와 유관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개발을 위해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 개발 · 인증위원회(위원장 혜거)는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인증 · 인성 프로그램 심의를 진행, 이날 제출된 프로그램의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2016년 불교 인성프로그램의 '중독예방' 주제에 이어 '차문화' 주제 심의가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보완 제출이 요구된 프로그램은 10차 회의에서 인증된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프로그램 외 '청소년 마음문화 차행법', '차 마시며 부처님 닮아요', '다도예절인성' 프로그램과 지난해 보류된 중독 관련 '스마트폰 중독치유와 예방' 등이다.

인증위원장 혜거 스님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함께 성과가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체험을 확장한 수준에 불과했다. 불교적 이론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교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나, 지도자의 실참 등 전문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에 불교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다.

동방문화대 교수 인경 스님은 "불교 유관 분야로 진출 할수록 그 근간에 불교 가치를 어떻게 담는지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인증 프로그램도 불교 가치를 담은 이론근거를 보다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 가치를 기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경 스님은 "결국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교계가 자생적인 인성교육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증된 불교 인성프로그램은 12개로 대부분이 정부 지원의 '청소년 마음등불' 명칭으로 전국서 운영 중이다. 참여인원이 집계되는 청소년 마음등불의 경우 2014년 520명, 2015년 556명, 2016년 737명이 참여하는 등 매년 참석자가 늘고 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용어에서 조차 불교적 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 인큐베이팅을 벗어난 불교 인성교육이 불교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려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각광받는 명상 외 불교문화와 연관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또 석 · 박사 자원이 태부족한 가운데 연구인력을 배양하고, 일반 사회에도 효과를 입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는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서는 불교 인성교육 연구발표를 종단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종단 차원에서 직접 연구프로젝트를 가동하거나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하고 그 결과를 유관 학술지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에 알려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차문화' '중독예방' 등 신규프로그램 심의 보류
불교가치 체계화 미흡 평가

기존 프로그램 정부 의존
자생 위한 조사, 연구 필요
종단 차원 프로젝트 제안도

성해영 서울대 교수는 "불교에는 자연과 함께 한 사찰이라는 유형 자원과 스님이라는 인적 자원, 그리고 불교는 전통문화라는 문화적 자원을 모두 갖고 있어, 다른 종교에 비해 인성교육에서 한발 앞선 상황"이라며 "인성교육 자생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불교 전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6일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녀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소녀상을 태운 151번 버스가 일본대사관 인근 안국역에 다다르자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듯 구슬픈 노랫가락에 시민들은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의 151번 버스 5대에 소녀상이 설치됐다.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임진욱 동아운수 대표가 낸 아이디어다. 16일 우이동 차고지를 찾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 스님은 소녀상의 손을 꼭 잡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녀상을 태운 151번 버스는 총 5대로, 9월 30일까지 운행된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종단 질서 훼손, 엄중 조치해야"

조계종 원로회의, '종도에게 드리는 글' 발표

안팎 잡음에 입장 표명
선거 중립 · 화합 당부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잡음에 대해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 질서 훼손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5차 회의를 열고 '종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원로 23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종단 안팎으로 혼란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종단 집행부는 주인의식과 여법함을 유지하고, 종헌종법 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 내외로부터 과도한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해 종단의 가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부추기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원 가능한 제재와 법적수단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부 문제를 외적인 힘을 빌려 확산하는 일이 있다면 경계 대상이다. 정당과 여법에 어긋난다면 종단은 정체성과 권위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는 또 "종단 소임자는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고, 화합과 안정의 기반 위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전 종도는 잘 헤어려서 매순간 원력을 점검하고 부질없는 낭비가 있는지 살펴 불일증휘 법륜상전에 일로 정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로회의는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천했다. 아울러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앙종회에 종헌 및 원로회의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흥원 신임 이사장 이각범 이사 추대

15일부터 3년 임기 시작



(재)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 사진)가 추대됐다.

진흥원은 "지난 6월 제163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각범 이사를 추대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이각범 신임 이사장 임기는 8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1948년생인 이각범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과 빌레펠트대학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으며,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1995~1998) · 대통령 국가정보화 전략위원장 등 불자 오피니언 리더로서도 활약했다.

신성민 기자

1161호 INDEX

시방세계 5
군종교구, 공군사관학교 '평화의불' 봉안



화엄만다라 B1 · 2
道伴의 향기 -명상나눔협동조합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www.hyunbulshop.com